

【논문】

고려·거란 전쟁 시기 동북아 국제질서가 女眞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박세원**

차례

- I. 들어가며
- II. 고려 전기 동북아 역학구도
- III. 성종대 고려-거란전쟁을 둘러싼 국제정세와 여진
- IV. 현종대 고려-거란 전쟁을 둘러싼 국제정세와 여진
- V. 맺으면서

국문초록

고려-거란전쟁 시기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고려 초기의 고구려 계승의식에 따른 대 거란 적대정책과 북진정책이라는 국내정치적 문제나 고려-거란관계라는 단선적인 국제관계의 문제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이 전쟁은 고려와 거란만이 아니라 중원의 오대와 송나라, 서부의 몽골, 서하, 동부의 발해, 정안국, 여진과 같은 동북아시아 여러 세력들의 입체적인 역학관계를 통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중에서도 군마라는 전략물자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독자적인 통일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던 여진의 역할은 이후 여진이 거란을 물리치고 동아시아의 패권자로 성장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거란은 고려를 복속시키기 위해서, 고려는 고구려의 고토인 북방영토를 획득하기 위해서만 서로 간에 3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대립과 전쟁을 벌였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력들이 공존하는 동북아의 국제 관계 속에서

* 본 논문은 단국대학교 부설 한중관계연구소에서 개최한 제15회 학술 심포지엄 “10-12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고려를 둘러싼 다원적 국제관계의 실상”(2023.12.1.)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경남대학교 고운학연구소 연구전담교수.

각자의 외교적,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전쟁과 협력을 병행해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진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거란은 고려와 압록강을 경계로 서로 접촉하게 되면서 송과 여진의 연결루트를 차단하였고 이를 통해 적국인 송으로 들어가 송의 기병을 육성하는데 쓰였던 여진 마필을 자신들의 기병을 육성하는데 쓰며 군사적인 이익을 취하였다. 그리고 고려와 여진을 복속시켜 동방에서의 후고지우 없이 대송전쟁에 집중하여 송나라에 대해 유리한 위치에서 전연의 맹약을 맺으며 이후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주도하게 되는 외교적인 성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한편 고려는 거란이 송과 여진 사이를 차단하는 것에 협조한 후, 송-여진 사이의 교역을 증개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였다. 또한 거란과의 전쟁 기간 동안, 송과의 교역을 증개하는 것을 통해 이를 필요로 하는 여진부족들의 귀부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반대로 송나라에는 여진사절을 대동한 사절단을 파견하여 송나라에 여진 마필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고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자신의 외교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었다.

주제어: 고려-거란전쟁, 고려-여진관계, 고려사, 여진족, 고려전기 국제관계

I. 들어가며

고려 전기의 동아시아 세계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극적인 국제질서를 벗어나서 북방의 거란과 중원의 송나라가 적대관계를 이루면서 패권을 다투었고, 그 속에서 고려와 서하, 몽골, 여진,¹⁾ 靑唐 등이 각기 한 축을 담당하는 다극적인

1) 만주지역은 古來부터 다양한 종족들이 우리 민족과 함께 살아왔다. 그중 고구려의 유민들과 함께 발해를 건국했었던 말갈족은 발해가 멸망한 이후 일부는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 영내로 사민되었지만 나머지는 부족단위로 만주지역에 흩어져 살아가게 되었다. 사서에는 이들을 여진, 압록강여진, 장백산삼십부여진, 남여진, 북여진, 室韋, 鐵驪, 鼻骨德, 말갈, 于闐, 烏隈, 五國, 兀惹, 蒲盧毛朵 등으로 기록하였고 이들은 점차 여진의 한 부족으로 변모해간다. 하지만 서로 다른 사서에 기록된 각각의 명칭이 각기 구별된 부족을 지칭하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 각 부족과 주변세력과의 관계를 특정짓기도 매우 어렵다.(김위현, 2004, 『高麗時代 對外關係史 研究』, 경인문화사, 91쪽 참조) 때문에 이들을 각기 어떻게 구별해서 논할지는 그 자체로 하나의 별개의 연구주제가 될 것이며 이를 논하는 것은 본문에서 논하고자 하는 주제를 흐리게 만들 수밖에 없다. 이 논문에서의 여진은 고려

국제관계를 형성하였다. 그중 고려는 거란·송이라는 두 대국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었다. 한편으로 고려는 중국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려 하였고 이 관계를 통해 거란과 세력균형을 이루려고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거란은 고려가 거란을 향해 稱臣納供을 하고, 거란 중심의 국제질서 속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도록 압박하였다.²⁾ 때문에 거란은 고려를 복속시키기 위해 3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공해왔고 고려는 북방의 패자인 거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내부적으로는 민족의 독립을 지켜내었고 대외적으로는 동북아 국제질서의 중요한 주체자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 때문에 작게는 고려-거란전쟁 시기, 크게는 고려 전기의 대외관계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세현은 고려 전기, 통일 국가를 아직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여진과 고려의 관계에 대해서 처음으로 단독 연구를 진행하여 고려 전기 사료 속에서 여진 관계 기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³⁾ 김재만 선생은 3편의 논문과 저작을 통해서 한국에서 희소한 고려-거란관계사, 더 나아가서 거란을 주체로 바라본 동아시아 국제관계사에 대해서 상세한 연구성과를 도출하였다.⁴⁾ 선생의 연구는 고려와 거란의 국경이 맞닿게 되는 것이 여진에게 어떻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가장 먼저 주목하였다. 김위현 선생의 연구는 고려가 아닌 여진을 주체로 놓고 말을 중심으로 여진이 주변국과 어떻게 교역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상세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송과 여진이 대량으로 마필을 교역하였다는 사실을 규명해내었다.⁵⁾

와 거란의 외교에서 변수이자 객체일 뿐 여진을 주체로 하여 논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진의 종류와 구별은 따로 논하지 않을 것이며, 본문에서 나온 여진이라는 표현은 '어떤 여진 부족' 정도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한다.

2) 陶晉生, 2008, 『宋遼關係史研究』, 中華書局, 141쪽.

3) 이세현, 1971, 「고려전기의 여·진관계에 대하여」, 『군산교육대학원논문집』 4.

4) 김재만, 1986, 「契丹·高麗 국교전사」, 『인문과학』 15; 1992, 「거란 성종의 고려침략과 동북아세아 국제정책의 변추(상)」, 『대동문화연구』 27; 1993, 「거란 성종의 고려침략과 동북아세아 국제정책의 변추(하)」, 『대동문화연구』 28.

5) 김위현, 1982, 「女眞의 馬貿易考: 10세기~11세기를 중심으로」, 『명지대논문집』 13.

최덕환의 연구는 고려 전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여진이 당시 역학관계에 미쳤던 영향에 대해서 주목한 첫번째 연구이다. 특히 여진이 전략물자라고 할 수 있는 군마자원을 송나라에 수출하였던 것이 거란에게 위협적이었던 것이 거란이 여진토벌에 나서게 되었던 원인이라 본 것은 주목할 만한 주장이다. 또한 최덕환은 선학들이 고려침공 이전에 있었던 거란의 여진정벌을 단지 고려침공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에 불과하다고 봤던 것과 달리, 도리어 고려침공을 여진정세 해소를 위해 고려를 거란의 협조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감행한 것이라고 재평가하였다.⁶⁾ 나영남의 연구는 고려와 송, 거란에서 각기 다른 호칭으로 불리는 여진의 각 부족 명칭을 설득력있는 가설을 통해 재분류를 시도하였다. 그 역시 최덕환의 연구처럼 거란의 동방경략의 주대상이 고려보다는 여진에 있었다고 보았으며, 고려의 북방을 향한 영토확장이 거란을 자극하여 고려·거란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으로 추측하였다.⁷⁾

고려·거란 전쟁과 이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 연구의 중요성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해외 학계에서도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⁸⁾ 그 중 무역관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丸龜金作의 것이 있는데, 여진의 주요 수출품에 말 이외에 靑鼠와 담비의 가죽이 있었다는 것에 처음으로 주목하였다.⁹⁾ 日野開三郎은 여진인들의 대송무역 경로를 고찰하여 그들이 요동연안에서 발해만을 넘어서 산동으로 향하다 991년 거란에 의해 차단당한 이후, 고려의 대송사절을 이용하여 송과 접촉을 시도했음을 밝혔다.¹⁰⁾ 景愛는 거란을 주체로 하여 고려는 거란이 여진을 약화시키는 것을 틈타 어부지리를 얻기를 원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¹¹⁾ 趙永春은 여진과 고려의 조공관계는 여진의 거란에 대한 정치적인 종속

6) 최덕환, 2012, 「993년 고려-거란 간 갈등 및 여진 문제」, 『역사와 현실』 85.

7) 나영남, 2017, 「고려와 동·서여진의 관계」, 『歷史學研究』 67.

8) 池内宏, 1918, 「高麗成宗朝に於ける女眞及び契丹の關係」,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5; 1920, 「高麗顯宗朝に於ける契丹の侵入」,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7; 1937, 「遼の成宗の女眞征伐」, 『滿鮮史研究』中世 1; 1937, 「契丹成宗の高麗征伐」, 『滿鮮史研究』中世; 陶晉生, 2008, 전게서.

9) 丸龜金作, 1935, 「高麗と契丹・女眞との貿易關係」, 『歷史學研究』 5-2.

10) 日野開三郎, 1990, 『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第16卷: 東北アジア民族史(下)-後渤海・女眞篇-, 三一書房.

관계로서의 조공관계를 전제한 관계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현종 이후에야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본다. 조영춘 이외에도 중국학계에서 바라보는 여진의 대외관계는 거란에 대한 정치적인 종속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여진과 고려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러한 종속성을 해치지 못하는 제한적인 관계에 불과하다고 보는 특성을 지닌다.¹²⁾

본고는 이런 선학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고려 전기 고려·거란 전쟁으로 치닫게 되는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에서 고려와 거란이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갔으며 이것이 여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 한다. 그 과정에서 발해를 멸망시킨 북방 오랑캐인 거란의 위협에 맞서 고려가 3차례나 전쟁을 치르면서 압록강까지 국경을 확대해 나갔고, 거란에 맞서기 위해 중원의 송나라와 연대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을 기울였다¹³⁾는 기존에 알려져 있던 통념에 대해 재고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외되어 버린 거란과 고려에게 한편으로는 구축 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양쪽 모두에게 이용당하는 것으로만 알려진 여진이라는 주체가 이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 재조명해보도록 하겠다.

II. 고려 전기 동북아 역학구도

중원의 동북방 요서일대에서 세력을 구축하고 있던 거란은 중국이 오대십국의 동란에 빠져있는 동안 급격히 세력을 확장해 나가다, 916년 연맹의 수령이던 야율아보기가 稱帝하면서 북방의 패권국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거란 태조 야율아보는 즉위와 동시에 돌궐, 토욕혼, 당항, 사타 등 서방 제국을 친정하여 영토를

11) 景愛, 1990, 「遼代女眞人與高麗的關係」, 『北方文物』, 1990年3期.

12) 趙永春, 2010, 「遼代女眞與高麗朝貢關係考論」, 『遼金史研究』, 2010年2期.

13) 노계현, 1994, 『高麗外交史』, 갑인문화사, 67·75쪽; 김한규, 1999, 『한중관계사』, 아르케, 385-387쪽.

확장하였고, 926년에는 방향을 동쪽으로 돌려 발해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뒤이은 태종 야율덕광은 936년 중원의 後唐에서 내란이 일어난 것을 이용하여 반란을 일으킨 하동절도사 석경당을 도와 후당을 멸망시키고 그 대가로 새로 후진을 세운 석경당에게 稱臣納貢을 받고 중원과 북방의 경계가 되는 연운 16주의 땅을 할양받았다. 942년에는 석경당의 뒤를 이어 즉위한 석중기가 稱臣을 거부하고 공공연히 반거란의 움직임을 보이자 야율덕광은 직접 후진을 정벌하여 후진을 멸망시키고 화북일대를 일시 점거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같은 시기 한반도에서는 王建이 918년 태봉의 궁예를 타도하고 새 나라 고려를 개창하였고 936년 후삼국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통일을 달성하였다. 새 왕조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천명했고, 왕건은 즉위 하자마자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평양을 재수축하고 옛 고구려의 영토였던 대동강 이북의 북방지역을 향해 영역을 확장해 나아갔다. 하지만 고려가 영토를 확대해간 북방지역은 무주공산의 땅은 아니었다. 신라 말기 북방 국경 지역의 변경 방위가 허술해지고 발해가 거란에 멸망당하면서 통제를 잃은 여진 계통의 부족들이 만주와 한반도 북부 일대로 밀려들어왔다. 이 중 압록강 남안 일대에 흩어져 살던 부족들을 고려에서는 서여진으로 불렀고 두만강 유역에서 오늘날의 함경 남북도 일대로 이동한 세력을 일러 동여진이라고 불렀다.¹⁴⁾ 고려는 이들 여진 세력들을 일부는 회유하고 일부는 축출하면서 북방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아갔다. 때마침 북방의 거란이 이 시기 발해를 멸망시키고 세웠던 동란국을 요동 일대로 遷徙하여 동만주 일대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하였고, 또 관심의 방향을 동방이 아닌 남방의 중원으로 돌렸기 때문에 고려는 한동안 별다른 견제없이 북방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갈 수 있었다.¹⁵⁾

고려는 고구려의 계승을 명분으로 삼아 북방으로 영토를 확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란이 같은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진 국가였던 발해를 멸망시키자 이를 좌시할 수 없었다. 왕건은 941년 중원의 後晋에 사절을 파견하여 함께 연대하여 거

14) 이세현, 1971, 앞의 논문, 33쪽 참조.

15) 이세현, 1971, 앞의 논문, 41쪽.

란을 공격하자고 요청하였지만 거란의 도움으로 왕조를 개창할 수 있었던 후진 태조 석경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고려는 후진에 사신을 보낸 다음해인 942년 만부교 사건을 일으키며 거란과 공식적으로 단교를 하면서 공공연하게 거란과 적대관계를 형성하였다. 같은 해 후진에서는 석경당의 뒤를 이어 말제 석중귀가 즉위하였고 거란에 반감을 가졌던 석중귀는 전년에 고려에서 밝힌 거란 협공제약에 늦게나마 호응을 할 생각을 품게 되었다. 그래서 943년 고려에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한 사절을 파견하였으나 고려는 마침 태조 왕건이 사망하고 혜종이 즉위한 후 왕권을 둘러싸고 내분이 발생하고 있었던 터라 후진의 요구에 부응할 여력이 없었다.¹⁶⁾

10세기 말의 동아시아는 주변국과의 관계설정에서 제3, 제4국가들의 대외활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동시에 각 주체 간의 외교가 거시적인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질서를 구성하는 복잡다단한 국제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¹⁷⁾ 특히나 거란은 중원의 패자였던 오대 세력을 일거에 멸망시킬 정도로 강대한 국가였지만 북아시아 내륙에 위치하였다는 지정학적 특징상 항시 後顧之憂를 걱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거란은 924년 중원을 침공하려 하였으나 발해가 그 뒤를 노릴까 걱정하여 먼저 발해를 공격하여 후방을 다졌고,¹⁸⁾ 926년 발해를 멸망시키기 전 그 배후를 안정화하기 위하여 우선 서하에 대한 원정을 단행하기도 하였다.¹⁹⁾ 고려가 대거란 적대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은 서하 및 서역제국을 정벌하고 발해를 멸망시키는 것을 통해 동·서방에서의 후고지우를 없애고 중원에 보다 적극적인으

16) “初，高麗王建用兵吞滅鄰國，頗疆大，因胡僧襍囉言於高祖曰：‘渤海，我昏姻也，其王爲契丹所虜請與朝廷共擊取之。’高祖不報。及帝與契丹爲仇，襍囉復言之。帝欲使高麗擾契丹東邊以分其兵勢，會建卒，子武自稱權知國事，上表告喪，十一月戊戌，以武爲大義軍使·高麗王，遣通事舍人郭仁遇使其國，諭指使擊契丹。仁遇至其國，見其兵極弱，羈囉之言，特建爲誇誕耳，實不敢與契丹爲敵。仁遇還，武更以他故爲解。”(〔宋〕司馬光撰，2009, 『資治通鑑』, 中華書局, 권285, 「後晉紀」 6, 齊王開運二年條)

17) 육정임, 2011, 「고려·거란 '30년 전쟁' 과 동아시아 국제질서」, 『동북아역사논총』 34, 12쪽.

18) “時東北諸夷皆服屬，惟渤海未服。太祖謀南征，恐渤海倚其後，乃先舉兵擊渤海之遼東，遣其將禿飯及盧文進據平·營等州，以擾燕地。師攻渤海，無功而退。”(〔宋〕葉隆禮，林榮貴校注，1985, 『契丹國志』, 上海古籍出版社, 卷1, 「太祖」天贊三年冬十月條)

19) “天贊三年，將伐渤海，鐸臻諫曰：‘陛下先事渤海，則西夏必躡吾後，請先西討，庶無後顧憂。’太祖從之。”(〔元〕脫脫，1974, 『遼史』, 中華書局, 卷75, 「耶律鐸臻傳」)

로 간섭하려고 하였던²⁰⁾ 거란의 대외정책이 실패로 돌아갔고 고려까지 복속이 이뤄져야 후고지우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고려와 거란의 전쟁은 고려가 대거란 적대정책을 표면화한 후로도 한 동안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 거란 태종은 증원을 침공하여 후진을 멸망시키는데는 성공했으나 증원을 지속적으로 통치하는데 실패하였고 철군 도중에 급서하고 말았다. 그러자 거란의 황권은 태조의 장자 동란왕 야율배 계통과 태종 야율덕광 계통 사이에서 쟁탈전이 벌어졌으며 뒤이은 세종과 목종이 연달아 시해당하는 혼란기가 이어졌다. 북방에서의 간섭이 비교적 소홀했던 이때를 놓치지 않고 증원에서는 조광윤의 송나라가 건국되었고 오대십국 시기에 할거하던 지방정권들을 하나씩 병합하여 통일 증원왕조를 건립할 수가 있었다. 동방에서도 거란 세종과 목종 재위기 정치적인 혼란을 틈타 만주지역의 여진을 비롯한 족속들이 스스로 세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란왕 야율배의 망명 그리고 뒤이어 동란국을 통치했던 왕비 소씨의 사망 이후 동란국의 위상이 크게 약화되었다. 그러면서 동란국의 영향 아래 있던 여진이 점차 성장하여 증원의 송나라와 마필 교역이 시작되었는데 국초부터 계속된 전쟁으로 전마가 크게 부족하였던 송나라에게 있어서 이는 전력을 보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바꿔 말하자면 여진이 송에게 마필을 수출하는 것은 송과 대치하는 입장에 놓인 거란에게겐 좌시할 수 없는 큰 위협이 되는 것이었다. 때문에 거란은 다시금 여진을 공략하여 무순이나 솔빈 등지에서 생산된 여진마가 송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했다.²¹⁾

20) 거란은 호전적인 유목민족이 세운 정복왕조였다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정치적인 타협이 이루어진 후에는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윤영인, 2020, 「거란의 대외정책과 동아시아 다원적 국제질서의 세력균형」, 『움직이는 국가, 거란: 거란의 통치전략 연구』, 청아출판사, 119-121쪽 참조) 하지만 이것이 거란이 증원을 위시한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거란은 주변국을 멸망시켜가면서까지 팽창하던 국가 초기와 달리 중기 이후에는 무력을 통한 대외공세는 자제하였지만, 북아시아 내륙에 위치한 특성상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능동적으로 주변국 사이의 관계에 개입하여 동북아의 국제관계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갔다. 고려와 후진, 북송이 건국 초기부터 거란을 견제하기 위해 접촉하였지만 끝내 대거란 동맹을 성사시키지 못했던 것 역시 거란이 능동적으로 주변국의 반거란 연대 움직임을 막아내면서 이들을 시간차를 두고 압박하여 연대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21) 최덕환, 2012, 앞의 논문, 278-281쪽.

Ⅲ. 성종대 고려-거란전쟁을 둘러싼 국제정세와 여진

거란이 내부적 혼란으로 인해 동방에 관심을 둘 수 없었던 이 시기 고려는 국경을 대동강에서부터 청천강 유역까지 북진시키고 압록강까지도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984년(고려 성종3년) 고려는 압록강변에 성을 쌓다가 여진의 공격을 받아 책임자 형관어사 李謙宜가 생포되고 군대가 궤멸당하는 대참패를 당하면서 북진이 난항에 부딪히게 되었다.²²⁾ 그 즈음하여 고려가 보였던 행보에 주목할만한 또다른 기사가 전해져온다.

왕이 시일을 끝며 군사를 일으키지 않자 韓國華가 위협과 덕행으로 달랐다. 왕이 비로소 군사를 일으켜 서쪽에서 만나기를 허락하자 한국화가 이에 돌아갔다. 이보다 앞서 契丹이 女眞을 칠 때 우리 영토를 길로 삼았는데 여진은 우리에게 적을 끌어다가 분란을 엮었다 말하고, 宋에 말을 바치러 가서는 그로 인하여 誣告하고 讒訴하기를, “고려가 거란과 더불어 그 세력의 도움에 기대어 우리 백성을 노략질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韓滉齡이 송에 가서 송 황제는 여진이 올린 급함을 고한 木契를 꺼내어 한수령에게 보이면서 말하기를, “본국에 돌아가 말하여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돌려보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왕이 그를 듣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다가 한국화가 이르자 왕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진은 탐욕스럽고 거짓말을 많이 하므로 저번 겨울 거듭 목계를 급히 보내어 거란 군사들이 장차 그 땅에 이른다고 말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거짓인지 의심스러워 즉시 구원하지 못하였소. 거란이 과연 이르러 많은 (여진)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갔소. 그러자 남은 족속들이 도망쳐서 우리나라의 懷昌·威化·光化의 땅으로 들어오니 거란 군사가 쫓아와 사로잡아 가면서 우리 戍卒에게 이르기를, ‘여진이 매번 우리 국경 시골을 쳐들어와 도적질하므로 이제 우리는 그 원수를 갚고 군사들을 정비해서 돌아간다.’라고 하였소. 이에 여진에서 도망쳐 온 2,000여 명에게 모두 노자를 주어서 돌려보냈는데, 뜻하지 않게 도리어 몰래 군사를 갑자기 들여 우리 관리와 백성들을 죽이거나 도적

22) “命刑官御史李謙宜, 城鴨綠江岸, 以爲關城, 女眞以兵逼之, 虜謙宜而去, 軍潰不克城, 還者三之一.”(朝鮮鄭麟趾, 2001, 『高麗史』, 신서원, 권3, 「성종세가」 3년5월조)

질하였으며 장정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모두 노예로 삼았소. 그런데도 (여진이) 대대로 중국을 섬겨와 감히 원수를 갚지 못하였는데 어찌 도리어 서로 무고하여 성총을 현혹할 줄 기약하였겠소? 우리나라는 대대로 중국의 정삭을 받고 삼가 공물을 바침으로써 황제의 총애를 크게 받아두고 있으니 감히 두 마음을 가지고 외국과 교통하겠소? 하물며 거란은 遼海 바깥쪽에 끼어 있으며 또 우리와는 큰 강을 두 개 사이에 둘 정도로 협해 따를 만한 길이 없소. 또 여진에서 피난을 와 우리나라에서 벼슬을 받는 자가 10여 인이 아직 있으니, 바라건대 경계에 불러다가 入貢하는 사신들과 대질하게 하면 거의 사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원컨대 황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오.”라고 하였다. 한국화가 허락하였다.²³⁾

- 23) 『高麗史』 권3, 「성종세가」 4년5월조. 같은 기사가 중국 측 사서인 『宋史』에도 전해진다. “이전에 거란이 여진국을 정벌할 때 고려와의 경계를 지나갔는데, 여진은 고려가 (거란을) 끌어들이 禍亂을 불러왔다고 생각하여 본조에 말을 조공하며 하소연을 하였다. 또 고려가 거란과 결탁(結好)하여 (서로) 의지하고 응원하여 (여진)백성들을 약탈하고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고려사절 韓滲齡이 입공하러 도착하자 太宗이 여진이 급변을 고하기 위해 올린 목계를 꺼내어 한수령에게 보이며 귀환하면 본국에 진술하여 붙잡아간 백성들을 돌려주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王治[성종]이 이를 듣고 걱정하여 한국화가 이르자 사람을 시켜 한국화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난해 겨울 兀朮머리에 여진이 목계를 들고 말을 달려와 고하기를 거란이 병사를 일으켜 국경으로 들어왔는데 우리(當道)가 알지 못할 듯하니 마땅히 미리 대비하라고 하였소. 우리는 여진과 비록 이웃이라고는 하나 길이 아득히 먼데다가, 그들의 참·거짓을 잘 알고 있는데 탐욕스럽고 거짓이 많아 믿을 수 없었소. 그 뒤에 다시 사람을 보내어 알리길, 거란 병마가 이미 梅河를 건너갔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여진도 진실되다고 믿지 못하여 대책을 세우고 구원하질 못하였소. 갑자기 거란인이 구름처럼 모여 여진을 크게 공격하여 죽이고 붙잡은 무리들이 매우 많았소. 나머지 족속들이 패퇴하여 도주하였는데 거란이 그 뒤를 추격하여 우리 서북의 德昌, 德成, 威化, 光化의 경계까지 이르러 붙잡아 돌아갔소. 이때 거란병 1기가 德米河의 북쪽에 이르러 큰 소리로 관성 수졸에게 다음과 같이 고하였소. 「나는 거란의 기병인데 여진이 우리 변경을 늘상 약탈하여 지금 복수를 마쳤으니 병사를 정돈하여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비록 군대가 퇴각한다고 들어어도 아직 불측한 일이 날까 걱정하여 곧 도망은 여진병사 이천여 인에게 물자를 지급하여 돌려보내었소. 여진이 다시 우리에게 梅河의 나무와 요해를 막고 성루를 쌓아 방비하라고 권하자 이 또한 옳다고 여겼소. 막약으로 순시를 하고 수축을 시작하였는데, 뜻밖에 여진이 몰래 군대를 보내어 기습하여 관리와 백성을 죽이고 약탈하였으며 장정들을 붙잡아가 노예로 삼아 다른 곳으로 옮겨 버렸소. 그들이 해마다 中朝에 조공하기 때문에, 감히 병사를 동원하여 보복하지 못하였는데, 생각지도 않게 (중국에) 모함하여 (천자의) 聖聽을 迷惑케 하였소. 우리가 누세에 걸쳐 (중국의) 正朔을 받들고 조공을 바쳐왔는데 감히 두 마음을 품고 외국과 교통하겠소? 하물며 거란은 遼海의 밖에 동떨어져 있고 다시 大梅와 小梅 두 강으로 가로막혀 있으며, 여진과 발해는 본디 고정된 처처가 없는데 어떤 길을 따라 서로 교통하겠소? 부당하게 비방을 당하여 憤氣가 가슴에 차오르는데, 해와 달은 지극히 밝으니 명백히 비추어주실 것이오. 그런데 여진 피난민으로 구휼받지 않은 자가 없고, 또 관의 봉록을 받는 자가 아직 우리나라에 있으니 직위가 높은 자로는 勿屈尼于, 郝元, 尹能達, 郝老正, 衛迦耶夫 등 10여 인이 있소. 바라건대 京闕로 데려가 우리 입공 사절과 그 일에 대하여 조정에서 변론하게 하면 丹石과 같은 진심이 비로소 밝혀지게 될 것이오.’ 한국화는 이를 승락하고서 마침내 병력

위의 기사는 985년(고려 성종4년) 고려와 거란을 협공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²⁴⁾ 온 송나라 사신 한국화에게 전해에 있었던 여진인들이 '고려가 거란과 함께 여진을 약탈하였다'고 고변한 것이 무고임을 고려 측에서 해명하는 기사이다. 『고려사』 본문의 내용만을 문구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송과 고려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해석하기 쉽다. 그런데 당시의 정황을 살펴보면 서로 엇갈리는 고려와 여진의 항변 중에서 누구의 말이 보다 사실에 가까운지 의문이 들게 된다. 첫째로 여진의 이 고변이 무고였다면 왜 고려 사신 한수령이 송 태종 앞에서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지 못한 채, 1년 뒤 한국화가 고려에 왔을 때에야 국왕이 직접 사람을 보내어 이 사실을 변명하지 않을 수 없었는지 의문이다. 한수령이 북변의 일을 몰랐을 수도 있고, 국가 간의 중대사라 일개 사신이 명령받지 못한 일에 함부로 나서서 해명할 수는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한수령이 귀국 후에 송나라 측에 해명할 말을 조정에서 꾸민 뒤에 송나라 사신이 도착한 것을 기화로 이를 전달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져볼 만하다.

둘째로 거란군이 국경을 침범해온다고 告知해 주었는데, 고지해 준 자가 의심스러워서 적의 침입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은 변경방위에 대한 정상적인 안보태세라고 보기에 의문이 든다. 『高麗史』에는 전하지 않는 『宋史』의 기록을 보면 고려 측에서도 이 부분이 궁색하다고 느꼈는지 거란이 고려의 경내로 들어와 여진인들을 잡아간 뒤 여진인들의 말대로 축성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돌연 여진인들이 이를 습격하여 재물을 약탈하고 장정을 사로잡았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앞서의 사례는 신뢰관계가 없는 여진의 말을 믿고 적극적인 군사행동을 감행하기는

을 동원하여 서쪽에서 만날 것을 명하였다. 왕치는 질질 끌면서 조서를 받들지 않았으나 한국화가 누차 재촉하여 병력을 동원하겠다는 응답을 얻고서 귀환하였으니 여진의 일을 모두 갖추어 상주하였다.”(元)脫脫, 1985, 『宋史』, 中華書局, 卷487, 「高麗傳」)

- 24) 송 태종은 거란을 獨力으로 대항하기 어렵다 판단하고, 주변 세력에 적극적으로 동맹 관계를 타진하였다. 981년 고창 위구르에게 사신을 파견하였고 거란 배후의 阻卜과도 제휴를 모색하였다. 또 동방으로는 송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던 여진과 결탁하려 하였고 거란에 멸망한 발해 유민이 세운 정안국과의 접촉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한국화가 고려를 찾아 군사동맹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김성규, 2010, 「3개의 '트라이앵글' 北宋時代 동아시아 국제 관계의 大勢와 그 특징에 관한 試論」, 『歷史學報』 205, 226쪽).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이해할 소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신뢰관계가 없는 자의 말을 믿고 축성을 하였는데 그로 인해 약탈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보다 더 납득하기 어렵다. 이 이야기는 단지 여진의 말을 신뢰하면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는 앞의 행위에 근거를 만들기 위해 가공된 서사는 아닐지 의심해 볼 법하다. 셋째로 여진이 송나라를 섬겨왔기 때문에 이들의 약탈에 보복하지 못했다는 것은 고려가 건국한 이래로 꾸준히 여진을 몰아내고 북방으로 영역을 확장해왔던 고려의 행적을 보더라도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후 991년(성종10년)에 있을 압록강 밖 여진을 백두산 밖으로 축출하는 군사활동도 이런 논리라면 시행될 수 없었을 것이다.

넷째로 거란은 요해 바깥쪽에 있어서 그들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송나라 역시도 서해를 건너야 있다는 점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이다. 다섯 번째로 고려 측(當道)에서 보낸 조공사절과 고려에 피난와서 살고 있는 여진인들을 송나라 조정에서 대질심문을 해보라고 권하고 있는데, 고려에서 벼슬까지 하고 있고 고려에서 선발해서 파견한 여진인들이 송나라로 간다고 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 동포를 위해 진실을 호소해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끝으로 무엇보다 이 당시 국제관계에서 여진이 고려와 송 사이를 이간질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이었을지 분명하지 않다. 여진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었던 것은 거란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약체인 송나라와 고려가 서로 연대하는 것이 세력균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여진이 생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인데,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여진이 이 둘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이 점은 제1차 고려-거란 전쟁 직전에도 여진이 아마도 거란에 의한 송-여진간의 교역로 차단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²⁵⁾ 거란의 내침을 고려에 알려주었고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경내에 진입한 거란이 여진을 약탈하는 것을 방조하였던 것에 대해서 송나라에 납득할 수 있는 변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려 측에서도 “여진은 탐욕스럽고 거짓말을 많이 한다”라는 상투적인 말로 둘러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5) 김재만, 1992, 「거란 성종의 고려침략과 동북아세아 국제정책의 변추(상)」, 『대동문화연구』 27, 142쪽.

이 때문에 985년의 기록은 자신들의 입장을 남기지 못한 여진인들이 송나라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 남긴 증언에 보다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진인들의 고변을 살펴보면 자력으로 여진인들을 구축하고 압록강변까지 영역을 확충하는데 실패한 고려가, 압록강변의 여진세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거란을 통해 이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여진인들을 借刀殺人하기 위해 거란의 칩입을 최소한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 어쩌면 『高麗史』에서 누락된 『宋史』의 기록처럼 이를 위해서 고려가 거란과 일시적, 국지적으로 결탁(結好)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듯하다. 거란이 여진을 토벌하기 위해 고려의 경내까지 진입했던 것은 전술했던 바와 같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진인들이 송나라에 중요한 전략물자인 마필을 판매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거란이 차단하기 이전까지 여진은 약 1만필 내외의 방대한 수량의 마필을 송조와 교역하고 있었다.²⁶⁾ 군마를 양육할 수 있는 목초지를 확보하지 못했던 송은 상당수의 군마를 외부의 마필을 수입하는 것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었는데 송이 외부로부터 수입하는 마필의 수량을 보면 天聖연간(1023~1031년)에는 34,900여필, 嘉祐(1056년~1063년)이전에는 三歲市馬 17,100필 秦州券馬 年 15,000필이었다는 것을 보면 매년 1만필 이상의 말을 송에 수출한다는 것은 당시로서 상당한 수량에 해당하였다.²⁷⁾ 송은 건국 이후 강남에 위치한 여러 지방정권들을 병합하였고

26) “只如朝廷每年買馬，不補死數。西北未平，戰馬爲急。舊日女眞賣馬，歲不下萬匹，今已爲契丹所隔。” [宋]李燾，2004，『續資治通鑑長編』，中華書局，眞宗咸平五年三月癸亥條。 여진이 항상 만필 이상의 말을 송에 공급해왔을지는 불명확하지만 송의 주요 군마 유입지구인 河東，河西와 함께 여진말의 유입지구인 登州가 나란히 특기되고 있는 것을 통해 여진이 국초 송나라의 중요한 군마공급지역이었다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다.(祖宗舊制，以調牧司總天下馬政...雍熙·端拱間，沿邊收市：河東則麟府豐嵐州·火山軍三四·唐龍鎮·濁輪案，陝西則秦渭涇原儀環慶階州·鎮戎保安軍·制勝關·浩臺府，河西則靈·綏·銀·夏州，川峽則益文黎雅茂茂夔州·永康軍，京東則登州。 상계서，仁宗天聖四年九月乙巳條) 송은 여진마를 중시하여 발해만 입구의 沙門島 인호에 대해 특별히 조부 및 차역을 면해주면서 여진마의 운송을 돕게 하였다.(“乾德四年八月，復遣使來獻名馬，是下詔曰：‘登州·沙門島人戶等地居海嶠，歲有常租，而女眞遠隔鯨波，多輸駿足。當風濤之利，涉假舟楫，以爲勞言，念辛艱，所宜蠲復。自今特免逐年夏秋租賦·麴錢及緣科雜物·州縣差徭止令，多置舟楫濟渡女眞馬，來往其在舟棧木，自前抽納，今復給與主駕人力。’” [清]徐松輯，劉琳等校點，2014，『宋會要輯稿』，上海古籍出版社，卷196，卷2女眞條) 여진의 대송무역은 시기가 일정하지 않았고 또 무역의 성격도 소위 조공무역보다 사무역이 성행했으리라 생각된다(김위현, 앞의 책, 302-303쪽).

27) 김위현, 1982, 앞의 논문, 175쪽.

마지막으로 거란의 비호를 받는 北漢을 공격하면서 거란과 송은 979년 이래로 상시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 때문에 적국인 송의 기병 증강에 이용될 수 있는 마필이 송으로 넘어가는 것에 거란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980년(거란 景宗 乾亨2년) 거란은 풍주자사 王承美가 송에 말을 파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왕승미가 이에 따르지 않자 풍주를 약탈하기도 하였으며,²⁸⁾ 997년(거란 聖宗 統和15년)에는 호주자사 야율당고가 奸民들이 송과 서하와의 국경에서 말을 팔지 못하도록 금하기도 하였다.²⁹⁾ 이런 거란의 대송마필무역 금지조치는 전연의 맹으로 송 요관계가 평화상태로 전환된 이후로도 변하지 않아, 거란은 1069년(거란 道宗 咸雍5년)에도 거듭해서 변경의 마필이 송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조치를 내렸던 것이 확인된다.³⁰⁾

금수조치와 함께 거란은 984년(거란 聖宗 統和2년)부터 986년(統和4년)까지 수차례에 걸친 여진정벌을 단행하여 포로 10여만 명과 말 20여만 필 등을 노획하는 등 큰 성과를 올렸는데, 앞서 984년 겨울에 있었던 고려 경내에서의 거란의 여진에 대한 군사활동 역시도 그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송과 연대하며 거란에 저항하려던 정안국과 그 잔여세력들이 수차례(970, 981, 989, 991년) 여진 사절을 통하여 송과 교류를 이어 나가자³¹⁾ 거란은 991년(거란 성종 통화9년) 2월 해안을 따라 威寇, 振化, 來遠 세 성을 쌓고³²⁾ 여진이 송과 교류하는 통로를 차단하기에 이른다.³³⁾ 고려 역시도 때를 같이 하여 991년(고려 성종10년) 10월, 압록강 밖의 여

28) “契丹以書遣豐州刺史王承美, 令毋與中國市馬, 承美不從, 具奏其事, 契丹怒, 率衆掠豐州關以西部族三百餘帳.”(『續資治通鑿長編』, 太宗太平興國五年九月壬戌條)

29) “(統和)十五年七月, 禁吐谷渾別部鬻馬於宋, 時豪州刺史耶律唐古嚴立科條, 禁奸民鬻馬於宋夏界.”(『清張廷玉撰, 『欽定續文獻通考』, 四庫全書本)

30) “(咸雍五年) 仍禁朔州路羊馬入宋, 吐渾·党項馬鬻于夏.”(『遼史』卷60, 「食貨志下」)

31) “開寶三年, 其國王烈萬華因女眞遣使入貢, 乃附表貢獻方物.; (太平興國)六年冬, 會女眞遣使來貢, 路由本國, 乃托其使附表來上云...; 端拱二年, 其王子因女眞使附獻馬·雕羽鶴鶻, 淳化二年, 其王子太元因女眞使上表, 其後不復至.”(『宋史』, 卷491, 「定安國傳」)

32) “建威寇·振化·來遠三城, 屯戍卒.”『遼史』卷13, 「聖宗本紀」4, 統和九年二月甲子條: “是歲, 女眞首領野里鷄等上言, 契丹怒其朝貢中國, 去海岸四百里立三柵, 柵置兵三千, 絕其朝貢之路. 于是航海入朝, 求發兵與三十首領共平三柵, 若得師期, 即先赴本國, 願聚兵以俟. 上但降詔撫諭, 而不爲出師, 其後遂歸契丹. 時定安國王子太元因女眞使上表, 後亦不復至. 上又以渤海不通朝貢, 詔女眞發兵攻之, 凡斬一級, 賜絹五疋爲賞.”(『續資治通鑿長編』卷32, 太宗淳化二年條)

진을 백두산 밖으로 내쫓고³⁴⁾ 압록강 일대로 다시금 진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거란과 고려가 거의 동시에 압록강 일대로 진출한 이후로 중국의 사서에는 후술하게 될 고려 사절 편에 여진 사절이 포함되어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진이 송과 교왕했다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³⁵⁾ 그동안 학계에서는 일제시대 이래로 이런 거란의 여진침공을 고려침공을 위한 사전정치작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것으로 여겨왔으나,³⁶⁾ 실제 거란에게 있어서 동방안정화에 있어 중요했던 것은 여진을 평정하는 것이었다.³⁷⁾

그러면 여진문제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고려가 돌연 거란의 침공을 받게 되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실제로 거란은 여진침공을 감행하는 전후로 983년(거란 성종 통화원년) 10월에 고려침공을 기도하기도 하였다. 우선 성종대 고려 조정은 거란의 위협을 그렇게 심각하고 현실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³⁸⁾ 거란이 여진을 정벌하는 것을 기회로 거란과 협력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고 가정할 수 있을 듯하다. 984년, 거란군이 고려의 경내에 진입했

33) 991년까지 여진은 30부여진이 거주하고 있던 함흥평야로부터 한반도의 江界, 滿浦를 경유하여 정안국이 위치해 있던 通溝평야의 桓州 등지에 도착한 후, 압록강을 타고 내려가 연안항로를 따라 요동반도 연안의 여순등지를 지나 발해만의 입구에서 바다를 횡단하여 등주에 닿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991년 거란이 쌓은 三柵 중 압록강의 하중도로 추정되는 내원성 이외에 두 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으나 이들이 기록에 나온 것처럼 해안 400리에 성곽을 쌓았다면, 여진은 거란이 차지하고 있는 요동반도 연안을 따라 이전처럼 송조와 교역하는 것은 불가능했다(日野開三郎, 1990, 앞의 책, 350·475-477쪽 참조).

34) “逐鴨綠江外女眞於白頭山外, 居之.” 『高麗史』, 권3, 「성종세가」 10년 10월조.

35) 흥미로운 것은 중국측 사서에서는 이 당시 송과 여진의 마필교역로를 끊은 당사자로 거란 이외에 고려를 꼽고 있다는 것인데 이 역시 다음장에서 상술하도록 하겠다.

36) 김재만, 1992, 「거란 성종의 고려침략과 동북아세아 국제정책의 변추(상)」, 『대동문화연구』 27, 135쪽.

37) 이에 대해 나영남 선생은 거란은 내치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자국의 영내에서 자립한 反遼집단을 토벌하는 것이 고려를 공격하는 것보다 우선이었기 때문에 여진정벌이 더 중요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당시 압록강을 따라 여진, 정안국등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때로는 송과 연계하여 거란을 위협하였기 때문에 거란은 이들을 먼저 진압하는 동시에 고려와의 국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나영남, 2017, 앞의 논문, 227쪽).

38) 성종대의 기록을 보면 대외관계보다 국내의 정치체제 안정에 주력한 듯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다. 이 때문에 거란의 대두로 야기될 수 있는 국토 분쟁이나 전쟁의 위협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해졌던 정황이 보인다(이정신, 2003, 「강동6주와 윤관의 9성을 통해 본 고려의 대외정책」, 『군사』 48, 282-285쪽).

을 때도 고려에 피해를 주지 않고 여진만 토벌을 했던 전례나, 송의 사절 한국화가 고려에 와서 거란을 협공하자는 송태종의 제의를 전했을 때를 전후하여 986년(고려 성종5년) 정월, 거란사절도 고려로 와서 고려에 화친을 청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³⁹⁾ 고려가 거란과의 적대관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거란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안국을 멸망시키고 여진을 정벌하였다고 하더라도 고려가 거란과 전쟁을 벌이고 있던 송과 교류를 지속한다면 동방에서 목적이었던 후고지우의 근절이라는 대전략을 이룰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거란은 985년 7월 다시금 고려침공을 시도했지만, 986년 정월, 송나라의 침공을 받게 되자 東征兵力을 대송방위로 돌릴 수 밖에 없었다.⁴⁰⁾ 하지만 986년부터 989년까지 이어진 거란과 송 사이의 전쟁에서 君子館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에서 패전을 거듭하게 되자 송조는 전쟁에 소극적으로 돌아서게 되었고, 거란은 전쟁의 주도권을 넘겨받은 후 몇 차례 공세를 펼쳐 송이 전쟁에 소극적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런 후 거란은 991년 압록강변에서 고려의 협조 또는 묵인 아래 여진을 몰아내고 만주지역의 불안요소를 안정시킨 후, 993년(거란 성종 통화11년/고려 성종 12년) 마침내 동방에서의 후고지우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고려를 침공하게 되었던 것이다.⁴¹⁾ 그리고 고려와 사대관계를 구축하여 동방에서의 후고지우를 완전히 불식시킨 후에 본격적으로 대송공격에 전념하여 1004년(거란 성종 통화22년/宋 眞宗 景德元年) 송과 유리한 입장에서 澶淵之盟을 이끌어내고 동북아시아 국제질서를 주도하게 되었다.

39) “契丹遣厥烈來請和.”(『高麗史』 권3, 「성종세가」 5년 정월조)

40) “辛巳, 宋兵入涿州. 順義軍節度副使趙希贊以朔州叛, 附于宋. 時上與皇太后駐兵駝羅口, 詔趣東征兵馬以爲應援.”(『遼史』卷11, 「聖宗本紀」 2, 統和四年三月辛巳條) 송의 각 방면군은 1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출병하였으나 거란 정부는 3월 6일에서야 송의 대규모 침공 소식을 탐지하게 되었던 듯하다(馮東禮의 1인, 1996, 『中國軍事通史: 北宋遼夏軍事史』, 軍事科學出版社, 191쪽).

41) 이에 대해 김성규는 송이 구축하고자 한 對거란동맹은 거란의 견제로 인해서 실패한 것이며, 거란의 견제는 대체로 송의 동맹 상대를 응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파악했다. 성종이 즉위하는 해(983년)를 전후해서부터 阻卜토벌전이 계속 벌어졌고, 그와 동시에 행해진 여진 토벌은 정안국 토벌과도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거란의 고려에 대한 군사행동 역시도 고려를 둘러싼 송과 요의 삼각관계 속에서 전개되었다(김성규, 2010, 앞의 논문, 227-228쪽).

이런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제1차 고려-거란전쟁을 바라본다면 서희가 소손녕과의 담판에서 내세운 조건에 여진문제가 들어가게 된 것도, 거란이 고구려의 옛 땅을 내놓으라면서 쳐들어왔던 거란군이 오히려 압록강 이남 280리 강동6주를 고려에게 내주고 서둘러서 철군한 것도, 이후 거란측이 오히려 압록강 이북의 영역을 서둘러서 확보한 후 고려에게 압록강 이남의 영토를 공고히할 것을 독촉한 이유도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소손녕이 서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 소유인데, 너희들이 침범해왔다. 그리고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도 바다를 넘어 宋을 섬기기 때문에, 오늘의 출병이 있게 된 것이다. 만약 땅을 분할해 바치고 朝聘에 힘쓴다면, 무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서희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가 바로 고구려의 옛 땅이기 때문에, 국호를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하였다. 만일 국경 문제를 논한다면, 遼의 東京도 모조리 우리 땅에 있는데, 어찌 침범해 왔다고 말하는가? 게다가 압록강 안팎 또한 우리 땅인데, 지금 여진이 그 땅을 훔쳐 살면서 완악하고 교활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길을 막고 있으니, (요로 가는 것은)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더 어렵다. 조빙이 통하지 않는 것은 여진 때문이니, 만약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 영토를 돌려주어 성과 보루를 쌓고 도로를 통하게 해준다면, 어찌 감히 조빙을 잘 하지 않겠는가? 장군께서 만일 나의 말을 천자에게 전달해 준다면, 어찌 애절하게 여겨 받아들이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⁴²⁾

봄 2월, 소손녕이 글을 보내 이르기를, “요즈음 받든 우리 황제의 명령에 말씀하시길, ‘다만 고려와는 좋은 우호관계가 일찍부터 통하였고 국경이 서로 맞닿았다. 비록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김에 진실로 합당한 규범과 의례가 있지만, 그 처음과 끝을 살펴본다면 모름지기 오래도록 남겨야 한다. 만약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신이 도중에 막힐까 걱정이다. 따라서 고려와 서로 상의하여 길의 요충지에 성곽과 해자를 쌓아 만들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받고 스스로 생각해보니, 압록강 서쪽 마을에 5개의 성을 쌓아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하여 3월

42) 『高麗史』 권94, 「徐熙傳」.

초에 축성할 곳으로 가서 성 쌓는 공사를 착수할까 합니다. 삼가 요청하건대 대왕께서 미리 지휘하여 安北府로부터 압록강 동쪽에 이르기까지 총 280리 사이에 적당한 지역을 돌아다니고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헤아리게 하시고, 아울러 성을 쌓을 일꾼들을 보내 같이 시작할 수 있도록 명령하여 주시며, 쌓을 성의 수가 도합 몇 개인지 빨리 회보하여 주십시오. 귀한 것은 거마가 오가며 통합으로써 길이 조공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과 영원히 우리 조정을 받들어 스스로 편안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⁴³⁾

소손녕이 이끄는 거란의 제1차 고려침공의 목적은 고려를 군사력을 이용하여 완전히 섬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하지만 고구려의 옛 땅을 모두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던 거란이 오히려 압록강까지 땅을 내어주고 물러난 것은 거란이 원하는 것은 고려와의 접경 그 자체였으며 고려와의 접경이 거란에게 필요했던 것은 우선, 고려로의 교왕로를 확보하는 것을 통해 고려를 안정적으로 침공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고려를 위압하여 臣屬시키려 했던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을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이 루트에 거주하고 있던 여진을 구축하여 여진과 송이 교왕하는 길을 끊는 것이었을 것이다. 때문에 대동강 이북의 영토는 거란이 가지든 고려가 가지든 그것은 거란에게 있어서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고려가 강동6주를 차지하는 대가로 거란에 순순히 臣屬하고서 압록강에서 여진을 차단하는 일에 협조해준다면 거란으로서 는 그만큼 공력을 덜어주는 일이 되기도 한다.⁴⁴⁾ 때문에 거란은 고려에게 압록강 이남의 영역을 내어주고 빠르게 철군하였으며, 오히려 고려에게 한시바빠 압록강 이남의 영역을 공고히 할 것을 독촉했던 것이다. 명문의 표현대로 단순히 조빙만

43) 『高麗史』, 권3, 「성종세가」13년 2월조.

44) 실제로 요사 성종본기에는 단순한 무주지가 아니라 ‘여진에게서 취한’ 압록강 동쪽 수백리 땅을 고려에게 하사하라고 되어 있으며, 요사 고려전 역시 ‘여진국’ 압록강 동쪽 수백리 땅을 주었다고 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도 당시 고려와 거란의 약조에서 여진이 중요한 대상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高麗王治遣朴良柔奉表請罪, 詔取女直鴨綠江東數百里地賜之.』(『遼史』卷13, 「聖宗本紀」4, 統和十一年春正月丙午條), 「王治遣朴良柔奉表請罪, 詔取女直國鴨綠江東數百里地賜之.」(『遼史』卷115, 「二國外記」)).

을 위해서라면 고려-송간에 해왔던 것처럼 바다를 건너서 조빙부터 하라고 독촉했을 것인데 국경을 확장할 것을 채근했던 것은 이런 숨은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면 거란이 제2차 고려-거란전쟁 이후 고려에게 강동6주의 반환을 요구한 것과 고려가 그에 대한 반발로 여진사절을 대동하고 송에 입조했던 사정도 분명해진다. 거란의 입장에서는 고려가 국왕의 입조 등 거란의 통제에 완전히 복속되는 것을 거부하자 강동6주를 빼앗아서라도 송과 여진의 통교를 완전히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고려 또한 이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송에 여진사절을 대동하고 입조하였던 것이다.

IV. 현종대 고려-거란 전쟁을 둘러싼 국제정세와 여진

고려와 거란이 압록강 일대에서 여진을 내몰아 송-여진의 통교를 차단하고, 여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송조가 거란에 출병하는 것을 거절하면서, 여진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자존할 방도를 잃게 되어 거란이 원하는 바대로 점차 거란에 복속되는 길을 걷게 된다. 여진이 송조와 교역하였던 마필이 매년 1만필 이상이었다고 하는데, 그와 비견되는 숫자의 마필이 거란으로 향하는 것이 확인된다.⁴⁵⁾ 이전에는 송기병을 육성하는데 쓰였을 여진마들이 이후로는 거란의 기병을 유지하는데 쓰이게 되면서, 거란은 후고지우의 위협을 종식시켰다는 외교적인 이익 외에 적을 약화시킨 것으로 자신을 강화시키는 군사적인 이익마저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런 거란의 전략에 부응하였던 고려는 강동6주의 280리의 북방영토를 획득한 것으로만 만족했던 것일까? 고려 역시도 거란과 통교하고 송-여진의 통교를 차단시킨 새로운 국제 정세 하에서 적극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였다. 우

45) “女直進良馬萬匹，乞從征高麗，許之。”(『遼史』卷15, 「聖宗本紀」6, 統和二十八年 冬十月丙午朔條), “(咸雍5年)厥後東丹國歲貢千疋, 女直萬疋, 直不古等國萬疋, 阻卜及吾獨婉·惕德各二萬疋, 西夏·室韋各三百疋, 越里篤·剖阿里·奧里米·蒲奴里·鐵驪等諸部三百疋。”(『遼史』卷60, 「食貨志下」, 『遼史』「食貨志」의 위 기록은 이미 폐치된 동란국이 거론되고 있는 등 불명확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선 경제적으로 송과 여진 사이의 직거래를 차단하고 그 중간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했던 정황이 보인다. 여진이 송과 교역했던 물품에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마필이 있지만, 그 외에도 담비가죽(貂皮 또는 貂鼠皮)같은 모피류, 해구신(膾膾膾) 등의 약재, 布, 鷹, 金, 珠 등이 있었다.⁴⁶⁾ 여진이 고려와 교역했던 물품에는 역시 말 이외에 甲冑, 兵器, 모피, 布가 있었다.⁴⁷⁾ 고려가 오대와 송에 교역했던 물품에는 말 이외에 의복과 장신구 및 금은기, 자기, 실, 布 외에 병기류, 약재, 담비가죽(貂皮 또는 貂鼠皮)과 같은 모피류 등이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⁴⁸⁾ 이 중 담비가죽은 발해 때부터 만주지역의 특산품으로 고려가 여진에게서 받은 교역품을 송나라와의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매나 茯苓⁴⁹⁾과 같은 약재, 병장기, 금은, 진주 등의 귀금속은 고려에서 나는 것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여진에서 바친 것을 전용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다만 여진의 가장 주요한 산품인 마필은 송이 고려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 특기되지 않았던 점을 볼 때 고려의 중개무역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여진의 군마는 전술했던 바와 같이 송에 수출하던 수량과 비견되는 수량이 거란으로 유입이 되었다. 둘째로 그 외에 여진이 고려와 교역했던 마필은 고려 자신의 기병을 양성하는 데에도 필요했을 것이다. 셋째로 무엇보다 거란이 여진과 고려를 정벌했던 중요한 원인이 송으로 가는 여진 마필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는데, 고려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를 중개한다면 다시금 거란의 침공을 초래할 위험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고려 측의 사료를 보면 여진이 고려에 來朝하여 入貢한 기록이 현종시기부터 급증하는 것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른 많은 『高麗史』의 기록처럼 현종시기 거란의 제2차 고려 침공으로 7대실록과 같은 고려의 초기 사료들이 전부 逸失되어 버렸던 것 때문에 현종 이후의 기록만이 남은 것으로 여겨지고

46) 김위현, 1982, 앞의 논문, 176쪽.

47) 이세현, 1971, 앞의 논문.

48) 김한규, 1999, 앞의 책, 413쪽.

49) “所産人參·白附子·天南星·茯苓·松子·苓·白布等物, 並系契丹樞密院所管, 差契丹或渤海人充節度管押.”(『契丹國志』 卷22, 「四至隣國地利遠近」)

있으나, 여진 입공기사의 시작⁵⁰⁾이 거란의 제2차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된 1011년(고려 현종2년) 정월⁵¹⁾보다 빠른 것을 볼 때, 여진의 고려 입공이 본격화된 시점도 현종 재위를 전후한 때부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⁵²⁾ 제2차 고려-거란전쟁 이후 제3차 고려-거란전쟁까지의 기간 동안 고려와 거란 관계는 대단히 험악하였음에도 여진의 입공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단히 활발했으며 제3차 전쟁 직전인 1018년(현종9년)에는 무려 15회의 여진 입공기사가 나타나고 있다. 이때부터 여진의 고려 입공은 매년 수차례나 있을 정도로 극성을 이루게 되는데 이는 그동안 고려와 거란 관계의 불안정으로 교역할 루트를 찾지 못했던 여진의 교역품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와 동시에 이 무렵에 나타나는 고려사절의 여진인 대동 入宋使行기사들과 함께 생각해보면 여진이 단독으로 송과 교역하지 못하게 되자, 고려를 통해 송과 중계무역을 하거나 고려의 도움을 받아 고려사행에 동행하여 송과 교역하기 위해 노력하는 쪽으로 방침을 전환했던 것으로도 보인다. 고려는 중계무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대송무역을 대신한 대고려무역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 많은 여진 부족들의 입공과 내투를 받고 이들을 거란과의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등 외교·군사적인 실리도 챙겼던 것이다.

한편으로 송-여진 교왕을 차단한 것은 송에게 고려의 가치를 더 높이는 작용도 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고려는 제1차 고려-거란 전쟁에서 거란의 正朔을 받들기로 합의했다고는 해도, 여전히 송과 교왕하며 협력하여 거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하였다. 985년(宋 太宗 雍熙2년/고려 성종4년) 비록 한국화가 송태종의 명을

50) “會女眞九十五人來朝，至和州館，宗盡殺之。”(『高麗史』 권4, 「현종세가」 원년 5월甲申條)

51) “辛亥二年 春正月 乙亥朔 契丹主人京城，焚燒太廟·宮闕·民屋皆盡。是日，王次廣州。”(『高麗史』 권4, 「현종세가」 2년 春正月甲申條. 『遼史』 「聖宗本紀」에는 統和28년(1010년) 11월의 일로 기록하고 있다.

52) 이에 대해 중국학자 조영춘은 『高麗史』에 여진의 조공기사가 정종이후 2-30여 년간 단절되었다가 현종 때에 다시 나타난 이유로 여진의 고려에 대한 조공관계가 대여진 적대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북진정책 때문에 정치적이고 정기적인 제도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북진정책을 포기하고) 여진과 동맹을 맺는 쪽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현종 이후에서야 비로소 여진에 대한 실질적이고 정치적인 조공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본다(趙永春, 2010, 앞의 논문, 47쪽).

받고 고려에 거란 협공을 논의하기 위해 왔다고는 하나, 후진 말제 때의 평가처럼, 증원세력들이 고려에 기대하는 것은 정안국이나 여타 거란의 배후에 위치한 세력들에게 기대했던 바와 같이 거란의 뒤에서 거란을 견제하는 정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것이다. 고려의 군사적 역량을 재평가하는 것은 고려가 제3차 고려-거란전쟁에서 거란군을 격파한 이후의 일이다. 그렇다고 고려가 송나라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교역가치를 지닌 존재도 아니었다. 그랬기 때문에 제1차 거란 침공 시기 고려가 원병을 파병해주기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 송태종은 오랑캐끼리 서로 싸우는 일은 늘상 있는 일이라며 무시할 수 있었고,⁵³⁾ 제2차 거란침공 시기 송진종은 고려의 원병요청이 있더라도 오래도록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는 것을 핑계로 이를 거절하라는 권유를 받아들였던 것이다.⁵⁴⁾

하지만 상술했다시피 송조는 만성적인 군마부족으로 인해 군사력이 부진을 면치 못하였고 모든 방법을 써서라도 군마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고려가 여진수령들을 이끌고 송조에 遣使하였던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權知高麗國事 王詢(현종)이 奏告使 尹證古와 여진장군 太千機 이하 78인을 보내어 방물을 조공하였다. 王詢이 표를 올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진이) 거란이 길을 막아 오래도록 교통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에게) 황제의 존호와 정사를 내려주시길 청합니다.” 조를 내려 허락하였다. 왕순이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太千機가 부형이 이전에 들어가 보았을 때 그 형이 머물며 돌아가지 않아 여기(고려)로 왔다고 하니, (형을) 찾게 하러 보냅니다.” 또 하북에 살던 백성 寶文顯 등 17인이

53) “高麗國王治遣使元郁來乞師，言契丹侵掠其境故也。上以夷狄相攻，蓋常事，而北邊甫寧，不可輕動干戈。秋七月壬子，厚禮使其使而歸之，仍優詔答之。高麗自是絕不復朝貢矣。”(『續資治通鑒長編』，太宗淳化五年六月庚戌條)

54) “辛亥，雄州言契丹涿州移牒，言本國將征高麗，遣右監門衛將軍耶律寧奉書來告。上曰，‘前遣孫奭告以東封，契丹館夷於境上，但有報書，今其使來，當遣使接伴，示以方守前約，如堅欲赴闕，亦從其請也。’及寧至涿州，李允則止之，寧言奉國命以機事馳報，不敢駢。允則即遣使臣伴送赴闕。……又言，‘契丹以西樓爲上京，遼陽爲東京，在中京正東稍南。其習俗既葬畢守墳，或云國主欲守其母墳，聲言伐高麗駐遼陽城也。’上謂王旦等曰，‘契丹伐高麗，萬一高麗窮蹙，或歸於我，或來乞師，何以處之？’旦曰，‘當顧其大者，契丹方固盟好，高麗貢奉累數歲不一至。’上曰，‘然，可諭登州侍其旭，如高麗有使來乞師，即語以累年貢奉不入，不敢以達於朝廷；如有歸投者，第存撫之，不須以聞。’”(2004, 앞의 책, 권74, 眞宗大中祥符三年條)

이전에 거란에 의해 납치되었는데 고려로 도망치니 왕순이 이 또한 돌려보내어서 본관으로 돌아가도록 지시하였다. 황제께서 그 뜻을 매우 칭찬하며 윤증고를 후대 하였다.⁵⁵⁾

高麗가 告奏使·御事民官侍郎 郭元과 동여진수령 何盧太를 보내어 조공하였다.⁵⁶⁾

(郭元이) 宋에 사신으로 가서 토산물을 바치고, 곧 보고하기를 거란이 매해 침략한다고 하였다. 마침 여진도 호소하기를 거란이 침략하여 소요를 일으켜서 여러 해 동안 入朝할 수 없었다고 하였는데, 황제는 거란과 이미 화친의 맹약을 맺었으므로 답변하기 곤란하였다.⁵⁷⁾

이전에 女眞國人 回鶻者渾河盧가 本國으로부터 조공을 왔었다. (여진인은) 귀환할 때에 발해인을 만나 싸우면서 거듭 오고가다 거란에게 예속되었다. 이에 고려사절 徐訥에게 데리고 돌아가도록 명하고 旅裝과 돈을 지급하였다.⁵⁸⁾

崔元信이 東·西女眞首領을 데리고 찾아왔는데 별도로 中布 200필을 조공하며, 乞佛經 한 질을 요청하기에 조를 내려 이를 허락하였으나 布는 돌려주었다. 배가 침몰하여 곤궁해졌기 때문에 별도로 의복과 비단을 내려주었다. 여진수령 또한 각기 본토의 말을 가지고 진공하러 왔는데 중도에 모두 잃어버렸다고 하니 조를 내려 특별히 그 값어치를 지급해주도록 하였다.⁵⁹⁾

-
- 55) “權知高麗國事王詢遣奏告使尹證古及女眞將軍太千機已下凡七十八人, 以方物來貢. 詢表言, ‘契丹阻其道路, 故久不得通. 請降皇帝尊號·正朔.’ 詔從其請. 詢又言, ‘太千機自稱父兄曾入覲, 其兄留弗歸, 茲行遂往尋訪.’ 又河北居民竇文顯等十七人, 先爲契丹所掠, 投奔高麗, 詢亦遣還, 令歸本貫. 上深嘉其意, 待證古甚厚.”(2004, 앞의 책, 卷83, 眞宗大中祥符七年十二月丁卯條)
- 56) “高麗進奉告奏使·御事民官侍郎郭元與東女眞首領何盧太來貢.”(2004, 앞의 책, 卷85 眞宗大中祥符八年十一月癸酉條)
- 57) 郭元還自宋. 元之入宋, 會, 女眞亦訴爲契丹騷動, 累年不得朝. 帝以契丹旣受盟, 難於答辭.(『高麗史』 卷94, 「郭元傳」)
- 58) “初, 女眞國人回鶻者渾河盧自本國來貢, 及還, 道逢渤海戰敗, 復來歸, 以隸契丹. 至是, 命高麗使徐訥領還, 仍給裝錢.”(『續資治通鑒長編』 卷90, 眞宗天禧元年十二月己卯條)
- 59) “崔元信率東·西女眞首領入見, 別貢中布二千, 乞佛經一藏, 詔賜之, 還其布, 以元信覆溺匱乏, 別賜衣服·繒綵焉. 女眞首領又言各以本土馬來進貢, 中途皆失, 詔特給其直.”(2004, 앞의 책, 卷94, 眞宗天禧三年十一月己卯條)

위의 기록들은 각각 1014년과 1015년, 1017년, 1019년의 송에 대한 여진인 입공기사이다. 991년 거란과 고려에 의해 송과 통교할 루트가 차단된 여진은 이 네 차례의 사행 이외에는 북송말기까지 송과 왕래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 네 차례의 사행은 모두 고려의 대송사행과 연계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1014년(宋 眞宗 大中祥符7년/고려 현종5년) 12월에 있었던 첫 번째 사행은 같은 해 8월에 고려가 송에 사신을 보내어 이전처럼 송에 다시 귀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바로 그해에 여진사절을 대동하고 송으로 간 것이다. 기사에 나오는 ‘거란이 오랫동안 길을 막아 교통할 수 없었다는 말은 비록 고려의 표문에 나오는 말이지만 바로 이어서 여진장군 太千機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볼 때, 교통하지 못한 주체는 고려가 아니라 고려사절이 대동하고 간 여진이었다고 보는 게 옳을 듯하다. 고려는 이들이 오래도록 송과 교류하지 못했던 책임을 거란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바로 다음 해에 광원과 함께 보낸 여진 사절이 “여진도 호소하기를 거란이 침략하여 소요를 일으켜서 여러 해 동안 入朝할 수 없었다(女眞亦訴爲契丹騷動, 累年不得朝).”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렇다. 1015년(大中祥符8년/현종6년) 여진의 사행 역시도 『고려사』의 기록만 보자면 고려 사신 광원이 마치 우연히 송조정에서 여진사절과 마주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송측의 기록을 보자면 1014년처럼 고려사절이 여진사절을 대동하고 송으로 파견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1017년(송 진종 天禧元年/현종8년)에 있었던 여진사행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착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문의대로 해석하자면 여진은 991년 이후로도 여전히 독자적으로 송과 교역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던 것으로 보이나 끝내 거란 때문에 실패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이 여진 사신을 송조정은 고려사신이 귀국하는 편에 돌려보내고 있는데, 거란의 차단으로 여진이 송과 독자적으로 교왕하는데 실패하면서, 송나라조차도 여진과의 왕래를 고려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이 기사를 통해서 전부 확인된다. 1019년(천희3년/현종10년)의 崔元信의 사절 역시도 동·서여진을 대동하여 고려가 여진의 일부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세력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송 측에 과시하는 모양새를 보인다. 이에 송나라는 송과 여진의 왕래를 차단하여 절박한 전략물자였던 여진말의 수입이 차단되게 만든 주범은 고려보다

는 거란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여진이 고려에 부용되어 있으니 고려와 협력해야지만 여진의 마필을 다시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음을 위의 사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대중상부3년(1010년), 거란이 고려를 정벌하러 갈 때 그 나라(여진)을 지나갔는데 고려와 협세하여 거란에 저항하였다…(중략)…거란이 대패하고 군대가 크게 상하여 귀환하였다. 仁宗조에 이르자 마침내 중국과 다시는 통하지 않게 되었다. 이전 건륭연간(960~962년) 이래로 熟女眞은 蘇州로부터 바다를 건너 登州에서 말을 팔았고 옛 길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元豐5년(1082년)에 조를 내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대에 여진이 늘상 등주에 이르러 말을 팔았다. 그 후로 말이 다다르기 위해서는 길을 빌려야 하는데 고려가 가로막아 오래도록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지금 조정에서 고려와 서로 왕래하니 王徽(고려 靖宗)에게 다음과 같은 조칙을 내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만약 여진이 중국에 말을 팔러 오려 한다면 길을 빌려주도록 하라.’ 그러나 여진의 사절은 끝내 이르지 못하였다.’⁶⁰⁾

『三朝北盟會編』에 전하는 이와 같은 기사는 송나라에게 있어서 마필을 가진 여진의 중요성이 고려의 외교적 가치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고려사신이 여진사신을 대동하고 송에 사행을 오는 일은 송 眞宗 재위 기인 1019년을 끝으로, 인종이후 삼조북맹회편이 작성되는 북송 말기까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제3차 고려·거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후 거란과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한 고려가 송과 여진의 마필교역을 증개하여 거란을 다시 자극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고려는 언제든지 송이 보이는 대우에 따라

60) “本朝建隆二年，始遣使來貢方物，多名馬貂皮，自此無虛歲，或一歲再至。雍熙中來訴契丹置三柵屯兵，絕其朝貢之路，乞遣兵平之，眞宗爲降詔撫諭，而不發兵。又嘗訟高麗誘契丹侵其疆，高麗盛言女眞貪殘不可信。大中祥符三年，契丹往伐高麗，過其國，乃與高麗合拒契丹，……契丹大敗，喪師而還，至仁宗朝，遂不復通中國。先是建隆以來，熟女眞由蘇州泛海至登州賣馬，故道猶存。元豐五年，詔先朝時女眞常至登州賣馬，後聞馬行假道爲高麗截隔，歲久不至，今朝廷與高麗往還，可降詔敕王徽，如女眞願市馬中國者，許假道，而女眞之使卒不至。”『三朝北盟會編』，卷3，重和二年正月十日丁巳條。 같은 내용이 송회요집고에도 전하고 있다. “(元豐)五年正月二十六日，詔，‘在先朝時，女眞常至登州賣馬，後聞女眞馬行道徑已屬高麗，隔絕，歲久不至。今朝廷與高麗遣使往還，可降詔與國主，諭旨女眞，如願以馬與中國爲市，宜許假道。’”(『宋會要輯稿』，兵22-1 買馬上)

여진과의 교역을 증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보이면 되는 것이었고, 또 고려-거란전쟁의 승리로 마필 증개 외에도 군사적인 가치가 높음을 송조에 인식시켰기 때문에 다시 여진을 대동하는 위험성을 감수할 필요성이 없었다.

V. 맺으면서

그동안 고려-거란전쟁의 발생 배경과 그 영향에 대한 문제는 고려 초기의 고구려 계승의식에 따른 대거란 적대정책과 북진정책이라는 국내정치적 문제나 여요 관계라는 단선적인 관계의 문제에 집중해서 다뤄져왔다. 하지만 이 전쟁은 고려와 거란만이 아니라 중원의 오대-송조나 서부의 몽골, 서하, 동부의 발해, 정안국, 여진과 같은 여러 세력들의 입체적인 역학관계를 통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안된다. 그중에서도 군마라는 전략물자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독자적인 통일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던 여진의 역할은 이후 여진이 거란을 물리치고 동아시아의 패권자로 성장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거란은 고려를 복속시키기 위해서, 고려는 고구려의 고토인 북방영토를 획득하기 위해서만 서로간에 3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대립과 전쟁을 벌였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력들이 공존하는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 속에서 각자의 외교적,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전쟁과 협상을 지속해왔고 그 대상으로서 여진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거란은 고려와 압록강을 경계로 서로 접촉하게 되면서 송과 여진의 연결루트를 차단하였고 이를 통해 적국인 송으로 들어가 송의 기병을 육성하는데 쓰였던 여진마필을 자신들의 기병을 육성하는데 쓸 수 있었고 고려와 여진을 臣屬시켜 동방에서의 후고지우 없이 대송전쟁에 집중하여 송과 유리한 위치에서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었다. 고려는 송과 여진 사이의 교역을 증개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것은 물론이고, 외교적으로는 표면상으로는 거란에 신속하였으나 여전히 송과의 연계를 통해 거란을 타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송이 여진마필을 갈구하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송-여진 교역이 차단된

상황에서 여진과의 교역을 고려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어 송나라와의 외교에서 자신의 가치를 재고하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 [朝鮮]鄭麟趾, 2001, 『高麗史』, 서울: 신서원
- [朝鮮]金宗瑞, 2004, 『高麗史節要』, 서울: 신서원
- [元]脫脫, 1974, 『遼史』, 北京: 中華書局
- [元]脫脫, 1985, 『宋史』, 北京: 中華書局
- [宋]徐夢莘編, 王德毅標點, 1979, 『三朝北盟會編』, 臺北: 大化書局
- [清]徐松輯, 劉琳等校點, 2014, 『宋會要輯稿』,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清]張廷玉撰, 『欽定續文獻通考』, 四庫全書本
- [宋]司馬光撰, 2009, 『資治通鑑』, 北京: 中華書局
- [宋]李燾, 2004, 『續資治通鑑長編』, 北京: 中華書局
- [宋]葉隆禮, 林榮貴校注, 1985, 『契丹國志』,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 노계현, 1994, 『高麗外交史』, 서울: 갑인문화사
- 김한규, 1999, 『한중관계사』, 서울: 아르케
- 김위현, 2004, 『高麗時代 對外關係史 研究』, 서울: 경인문화사
- 동북아역사재단, 2020, 『움직이는 국가, 거란: 거란의 통치전략 연구』, 파주: 청아출판사
- 馮東禮·毛元佑, 1996, 『中國軍事通史: 北宋遼夏軍事史』,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 陶晉生, 2008, 『宋遼關係史研究』, 北京: 中華書局
- 日野開三郎, 1990, 『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第16卷: 東北アジア民族史(下)-後渤海·女眞篇, 東京: 三一書房
-
- 이세현, 1971, 「고려전기의 여·진관계에 대하여」, 『군산교육대학원논문집』 4
- 김위현, 1982, 「여진의 마무역고: 10세기~11세기를 중심으로」, 『명지대논문집』 13
- 김재만, 1986, 「契丹·高麗 국교전사」, 『인문과학』 15
- 구산우, 1992, 「고려 성종대 대외관계의 전개와 그 정치적성격」, 『한국사연구』 78
- 김재만, 1992, 「거란 성종의 고려침략과 동북아세아 국제정책의 변추(상)」, 『대동문화연구』 27
- 김재만, 1993, 「거란 성종의 고려침략과 동북아세아 국제정책의 변추(하)」, 『대동문화연구』 28
- 추명엽, 2002, 「고려전기 '번'인식과 동·서번의 형성」, 『역사와 현실』 43
- 이정신, 2003, 「강동6주와 윤관의 9성을 통해 본 고려의 대외정책」, 『군사』 48
- 구산우, 2010, 「고려 현종대의 대거란전쟁과 그 정치·외교적 성격」, 『역사와 경계』 74
- 김성규, 2010, 「3개의 '트라이앵글' 北宋時代 동아시아 국제 관계의 大勢와 그 특징에 관한 試論」, 『歷史學報』 205

- 육정인, 2011, 「고려·거란 '30년 전쟁' 과 동아시아 국제질서」, 『동북아역사논총』 34
최덕환, 2012, 「993년 고려-거란 간 갈등 및 여진 문제」, 『역사와 현실』 85
나영남, 2017, 「고려와 동·서여진의 관계」, 『歷史學研究』 67
丸龜金作, 1935, 「高麗と契丹・女眞との貿易關係」, 『歷史學研究』 5-2
景愛, 1990, 「遼代女眞人與高麗的關係」, 『北方文物』 1990年3期
趙永春, 2010, 「遼代女眞與高麗朝貢關係考論」, 『遼金史研究』 2010年2期

투고일: 2024년 03월 17일 심사완료일: 2024년 04월 09일 게재확정일: 2024년 04월 09일

■ Abstract ■

On the Impact of the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Order during the Goryeo-Khitan War on Jurchen

Park sei wan (Kyungnam University)

Existing studies on the period of the Goryeo-Khitan War have mainly focused on domestic political issues such as Goryeo's hostile policy and northward policy towards Khitan based on the consciousness of Goguryeo's succession in the early days of Goryeo, or the problem of the Goryeo-Khitan relationship as a unilateral international relations problem. However, this war should not be viewed only between Goryeo and Khitan, but rather through the three-dimensional dynamics of various Northeast Asian forces such as the Five Dynasties and Song Dynasty of China, Mongol, Xixia in the west and Balhae, Jeongan-guk, Jurchen in the east. Among them, the role of Jurchen, which had strategic materials such as war horses but had not yet formed an independent unification force, cannot be ignored when considering the fact that Jurchen later defeated Khitan and grew into a hegemon of East Asia. Khitan fought against Goryeo not only for the purpose of subjugating Goryeo, and Goryeo did not fight against Khitan only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the northern territory of Goguryeo, its homeland for nearly 30 years. Instead, they had been fighting and cooperating with each other for their respective diplomatic, military, and economic interests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Northeast Asia, where various forces coexisted. And within that, Jurchen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 variable. Khitan came into contact with Goryeo across the Yalu River, blocking the connection route between Song and Jurchen, and used Jurchen war horses, which had been used to cultivate Song's cavalry, to cultivate their own cavalry and gained military benefits. And by subjugating Goryeo and Jurchen, it was able to concentrate on the war against the Song in the east without any obstacles and concluded Chanyuan Treaty with Song on advantageous position, leading to diplomatic achievements that led the East Asian international order thereafter. On the other hand, Goryeo cooperated with Khitan in blocking the connection between Song and Jurchen, and mediated the

trade between Song and Jurchen to gain economic benefits. During the Goryeo-Khitan War, Goryeo was able to lead the submission and cooperation of the Jurchen tribe which needed it by mediating the trade with Song, and on the contrary, Goryeo dispatched envoys who led the Jurchen delegation and was able to enhance diplomatic value by instilling the awareness to Song that Goryeo's cooperation was necessary to gain Jurchen horses.

Key words: Goryeo-Khitan War, Goryeo-Jurchen relationship, Goryeo history, Jurchen tribe,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Early Goryeo Period